

민주당 ‘텃밭’ 인데...지명직 최고위원에 호남 배려해야

권리당원 많고 수도권 표심에 영향 ‘호남의 선택’ 따라 지도부 결정
8·2전당대회 당권 레이스 본격화... ‘호남 정치’ 강화 계기 마련해야

더불어민주당 8·2 전당대회 당권 레이스가 본격화 하면서 ‘호남 정치’ 위상을 회복하는 계기를 만들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다수의 권리당원이 포진된 ‘호남의 선택’에 따라 민주당 지도부의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이지만, 정작 전당대회에는 호남 정치인의 이름은 없고, 호남에 대한 구체적인 약속도 찾아볼 수 없기 때문이다. 광주·전남 대선 의원들은 전당대회 출마보다는 자신들의 내년 지방선거 도전을 위해 차기 당 대표 만들기에 총력을 기울이는 모양새다.

호남은 민주당의 텃밭으로 수 십년간 압도적인 지지를 보여주고 있지만 당선 가능성이 높은 탓에 ‘지나친 물갈이’만 되풀이돼 전당대회 선출직 지명직에 출마할 수 있는 여건마저 사라지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전당대회 이후 ‘지명직 최고위원’을 교체할 경우, 민주당 내에서 변방으로 내몰리고 있는 호남을 먼저 배려해야 한다는 구체적이 요구도 나오고 있다.

14일 민주당에 따르면 당권 주자인 박찬대·정청래 의원이 연일 광주·전남을 찾아 지지세를 넓히고 있다. 이들 후보를 지지하는 이 지역 국회의원과 광역·기초의원들마저 총동원이 돼 연일 전당대회 선거전을 치르고 있다.

박찬대·정청래 의원은 최근 매우 한 차례 이상씩 호남을 찾고 있으며, 서울 과시하기 위해 지역 정치권을 총동원 시기면서 불철수나온 모습도 연출되고 있다. 최근 한 당권 주자가 참여하는 행사에 지역 한 광역의원이 과도한 의전을 하면서 지역민의 원성을 사기도 했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둔 해당 지역 구 국회의원과 광역의원이 당권 주자에게 과도한 충성과 의전을 펼쳤기 때문이다.

이처럼 광주·전남 정치권이 지지 후보에 따라 각진영으로 나뉘어져 연일 설전을 벌이고 있다. 지역 국회의원의 조직과 광역·기초의원 조직까지 총동원이 돼 관련 단체 대화방을 개설해 자신들이 지지하는 당권 주자들을 홍보하고 있고, 일부 정치 조직 내에서 지지 당권 주자가 달라 서로 연성을 높이기

도 했다.

당권 주자들의 지역 행사에 조직을 총동원하면서 지역 정가에서 피로감도 호소하고 있다.

광주·전남지역이 때아닌 ‘민주당 전당대회 최전방’이 되고 있는 것은 이번 전당대회 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당 대표 선거에서 권리당원 비율이 55%나 차지하는 점이다. 호남에는 권리당원 약 35%가 포진해 있는 만큼, 박찬대·정청래 의원은 일찌감치 호남 당심 잡기에 상당한 공을 들이고 있다.

이에 지역 정가에서는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본인 선거를 위한 줄서기’를 중단하고 지역 발전과 호남 정치 복원을 위해 힘을 모아야 한다는 자중의 목소리도 내고 있다.

호남은 다수의 권리당원을 확보하고 있으며, 서울과 수도권의 표심에도 영향을 미침에 따라 민주당 전당대회의 중요 승부처다. 하지만, 정작 민주당 전당대회에서는 호남 출신 ‘선출직’은 찾아볼 수 없다. 앞선 전당대회 선출직 최고위원에 출마한 민형배·송갑석·서삼석 의원은 잇따라 낙마하면서 ‘민주당 전당대회 상수’로 여겨지던 ‘선출직 최고위원 호남 몫 한 명’이라는 공식도 사라졌다.

김민석 국무총리의 최고위원직 사퇴로 치러지는 이번 전당대회 최고위원 보궐선거에도 황명선(충남 논산·계룡·금산) 의원 1명만 출마를 선언했다.

광주·전남지역 국회의원 중 박지원 의원을 제외한 대선 의원들은 최고위원 도전 보다는 내년 지방선거 출마를 준비하는 탓도 크다. 광주 국회의원 8명 중 7명은 초선인데다, 유일한 재선인 민형배 의원은 내년 광주시장 출마를 준비중이고, 전남에서는 이계호, 신정훈, 서삼석, 주철현 의원 등이 전남지사 출마를 준비중이거나 고려중이기 때문이다.

민주당 중앙당 한 관계자는 “정권 교체 과정에 호남의 희생과 역할이 대대했고, 당내 입지도 가장 탄탄하지만 전당대회 기간에 호남에서 당에 대한 구



조은석 내란 특검팀이 소환에 불응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강제구인 절차에 들어간 가운데 14일 윤 전 대통령이 수감된 서울구치소에 법무부 호송차량이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내란특검, 윤석열 강제구인 무산 오늘 오후 2시에 다시 시도할 듯

尹, 건강상 이유 들어 불응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의 소환 통보에 불응한 윤석열 전 대통령을 상대로 한 1차 강제구인 시도가 무산됐다.

박지영 특별검사보는 14일 브리핑에서 “교정 당국으로부터 윤 전 대통령의 인치 지휘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연락을 받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특검보는 “나름의 최선을 다했으나 윤 전 대통령이 전혀 응하지 않고 수용실에서 나가기를 거부했다”며 “전직 대통령인 점 등을 고려할 때 강제적 물리력을 동원하기는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이어 “윤 전 대통령은 오래 검사로 재직하면서 조사 업무에 관해 누구보다 잘 아는 분”이라며 “이런 상황을 생각하면 적 없고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박 특검보는 아울러 “15일 오후 2시까지 피의자를 인지하도록 재차 지휘하는 공문을 서울구치소장에 보낼 예정”이라며 “내일은 조사가 이뤄질 것 같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은 윤 전 대통령 재구속 이틀남인 11일 출석을 요구했지만, 윤 전 대통령은 건강상 이유를 들어 불응했다.

특검은 그러나 윤 전 대통령의 건강 문제가 객관적 자료로 확인되지 않았다며 이날 오후 2시까지 출석하라고 재차 통보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에 “금일 출석과 관련해 지난번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고, 상황이 변경된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또다시 불응했다.

이에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을 이날 오후 3시 30분까지 조사실로 데려와 앉히도록 하라는 인치 지휘를 서울구치소에 전달했지만, 윤 전 대통령이 강제 구인을 거부하면서 또다시 조사가 무산됐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내란특검, 드론사·방첩사 압수수색... ‘외환’ 수사 본격화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14일 드론작전사령부(드론사)와 국방부, 국군방첩사령부 등에 대한 전방위 압수수색에 나서며 외환 혐의 수사를 본격화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은 이날 경기도 포천 드론사와 국방부, 국군 방첩사령부, 국방부 국방정보본부, 백령도부대 등 군사 관련 장소 24곳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북한 무인기 투입 관련 자료를 확보 중이다. 서울 용산구 국가안보실과 경기도 소재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 자택 등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작년 10월께 드론사에 평양 무

인기 투입을 직접 지시했는지, 또 군이 이를 은폐하기 위해 조직적으로 개입한 사실이 있는지를 조사 중이다.

특검은 작년 10~11월 윤 전 대통령이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를 건너뛰고 직접 드론사에 평양 무인기 투입 준비를 지시했다는 취지의 현역 장교 녹취록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드론사가 작년 10~11월 무인기 작전에 참여한 정보작전처장 등 25명을 국방부 장관과 합참의장, 합참 작전본부장 명의 표창 대상으로 추천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특검은 드론사가 추락 가능성을 알면서도 고의로 전단통을 달아 개조한 무인기를 띄워 북한의 도발

을 유도하려 했다는 의혹도 살펴보고 있다.

특검이 확보한 현역 장교 녹취록에는 “기계 불만 정성 때문에 추락에 대한 가능성은 항상 품고 있었다”, “드론사가 3D 프린터로 베라통(전단통)을 만들어 무인기를 통해 평양에 날려 보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군 관계자 진술 등을 바탕으로 작년 10월 북한이 사건을 공개한 무인기 외에도 평양 인근에 추락한 우리 군의 무인기가 한 대 더 있었을 가능성도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에는 군검찰로부터 원천히 국방부 국방정보본부장(중장) 사건도 이첩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필 제 240320-중-166683호]

[광고]

무릎 통증이 심할때는

첨단우리병원

무릎

관절

인공관절 수술

관절경 수술

- 전,후방 십자인대 수술

- 연골판 수술

튼튼한 척추 튼튼한 관절

첨단우리병원

대표전화. 970-6000

첨단과학기술원 / 호수공원 앞

신협이 활짝 피었습니다

든든한 금융의 힘으로

따뜻한 협동의 힘으로

당신을 평생 어부바하겠습니다

평생 어부바

신협

광주일보 유튜브

3000만 뷰 돌파